

강경민 16골...광주도시공사 핸드볼 4경기 무패 행진

서울시청에 30-24 승 3승1무로 리그 2위 도약

광주도시공사가 시즌 개막 후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뤘다. 광주도시공사는 15일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1라운드 서울시청전에서 30-24로 승리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까지 3승1무를 기록, 리그 2위로 도약했다. 개막 후 4경기 연속 무패행진도 지속했다. 강경민은 16골을 뽑아내 승리의 수훈감이 됐다. 경기 MVP에 선정된 강경민은 최근 4경기에서 42점을 올려 득점랭킹 1위에 올라섰다. 정현희(5골), 원선필(4골)도 골을 보태 낙승을 이끌었다. 광주도시공사는 46개 슈트를 던져 30개(성공률 65.2%)를 성공시키는 등 최절정 골감각을 유지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반전 17-9로 서울시청을 압도했다. 전반 5분까지 5-0으로 격차를 벌리는 등 여유있는 경기 운영으로 추격을 봉쇄했다. 손민지와 박조은은 각각 21.1%, 47.1%의 방어율로 서울시청 공격진을 무력화했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전 13-15로 득점에서 밀렸으나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승부를 마무리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3일 같은 장소에서



광주도시공사 강경민이 15일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1라운드 서울시청전에서 슛하고 있다. <핸드볼협회 제공>

열린 SK 슈가글라이더스전에서 28-28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강경민은 11골을 뽑아냈고 골키퍼 박조은은 세 이브 17개(방어율 38.64%)로 공수를 이끌었다. 박조은은 이 경기 MVP로 선정됐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25분까지 27-28로 앞섰으나 종료 3분전 슈가글라이더스 유소정에게 7m 드로우를 허용, 다잡은 승리를 놓쳤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선수 없는 LPGA 개막전

고진영도 출전 취소...전원 불참

오는 20일(한국시간)부터 나올 동안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개막전 힐튼 그랜드 버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는 한국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볼 수 없다. 지난 13일 조직위원회가 밝힌 출전 선수 명단에는 단 한 명의 한국 선수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회는 최근 2년 투어 대회 우승자만 출전할 수 있어 출전 대상자가 많지 않다. 올해 대회에 나설 수 있는 한국 선수도 지은희(37), 박인비(35), 전인지(29), 고진영(28), 김효주(28) 등 5명뿐이었다. 박인비, 지은희, 전인지, 김효주는 아예 출전 신청을 내지 않았고 고진영은 출전 신청은 했지만 마감을 앞두고 취소했다. 손목 부상 치유 경과를 보며 출전하려던 고진영은 좀 더 쉬는 게 낫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출전 의사를 거둬들였다. 한국 선수뿐 아니라 주요 선수 상당수가 개막전에 의연했다.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작년 신인왕 아타야 티피쿰(태국), US오픈 챔피언 이민지(호주)도 출전하지 않는다. 출산을 앞둔 박인비, 신혼인 리디아 고는 이 대회에 빠질만한 사정이 있다. 하지만 이 대회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뒤 다음 대회가 한 달 뒤 태국에서 열리는 혼다 타이랜드라는 점에서 주로 한국, 태국 선수들은 겨울 훈련을 충분히 소화한 뒤 태국 대회부터 시즌을 시작한다는 복안이다. /연합뉴스

안세영 '천적' 넘었으나 '숙적'에 막혔다

말레이시아 오픈 배드민턴 4강서 천원페이 꺾었지만 결승서 아마구치에 1-2 패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에이스 안세영(21·삼성생명)이 새해 첫 대회인 말레이시아오픈 결승전에서 '숙적' 아마구치 아카네(26·일본)에게 패해 준우승했다. 세계 랭킹 4위 안세영은 15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23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1위 아마구치에게 1-2(21-12 19-21 11-21)로 패했다. 1세트는 안세영이 가벼운 몸놀림과 절묘한 거리감을 뽐내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수세에 몰린 아마구치는 11-15와 12-20에서 인·아웃 챗린지를 요청했으나 안세영의 득점이 그대로 인정됐다. 2세트는 경기력이 살아난 아마구치가 주도권을 쥐고 안세영이 쫓아가는 형국이었다. 2-7까지 끌려가던 안세영은 8-8 동점을 맞추며 17-17까지 접전을 벌였지만, 결국 리드를 가져오진 못했다.

3세트에 들어서자 안세영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8강과 4강을 모두 폴세트 끝에 통과한 영향을 받는 듯했다. 특히 10-12에서 6연속 실점으로 승부의 추가 크게 기울었고 경기는 11-21로 끝났다. 우승은 어렵게 놓쳤으나 안세영은 세계 정상 아마구치를 상대로 세트 승리를 따내며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안세영은 최근 아마구치와 세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0-2 셋아웃 패를 당했다. 지난해 5월 세계여자단체배대만선수권대회 4강전 승리 이후 약 8개월 만에 세트 승리를 거둔

것이다. 한편, 여자복식 백하나(MG새마을금고)-이유림(삼성생명)도 세계 랭킹 1위 천칭천-자이판(중국)에게 0-2(16-21 10-21)로 무릎 꿇었다. 1세트 시작과 함께 0-4 리드를 내준 백하나-이유림은 추격의 불씨를 피워 올리려 했으나 끝내 점수 차를 줄이지 못했다. 2세트는 비교적 접전을 이루며 9-11로 휴식 시간을 맞았으나, 이후 공격이 라인을 벗어나거나 네트에 걸린 적이 많았다. 결국 세트 후반 상대에게 10점을 내주는 동안 1점 얻는 데 그치며 우승을 내줬다. 전날 남자복식 서승재(국군체육부대)-강민혁(삼성생명)은 4강전에서 세계 1위 파자르 알피안-무하마드 라이언 아르디안토(인도네시아)에게 0-2(18-21 17-21)로 패해 3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연합뉴스

당구 PBA 블루원리조트 플레이오프 진출권 획득

프로당구 PBA 팀리그의 남은 포스트시즌 진출권 한 장은 블루원리조트에 돌아갔다. 블루원리조트는 14일 밤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6라운드 마지막 날 웰컴저축은행에 세트 점수 0-4로 패했다. 그러나 앞선 경기에서 2위 경쟁팀인 NH농협카드가 TS삼푸-푸라담에 3-4로 패한 덕분에 블루원리조트는 후기리그 준우승을 확정했다. 블루원리조트는 12승 9패, 승률 0.571로 NH농협카드와 후기리그 승률에서 동률을 이뤘다. 대신 상대 전적에서 NH농협카드에 2승 1패로 앞서 순위 경쟁에서 승리했다. 이로써 PBA 팀리그 포스트시즌은 전기리그 우승팀과 준우승팀인 하나카드와 TS삼푸-푸라담, 후기리그 1-2위 팀인 웰컴저축은행과 블루원리조트까지 4팀이 출전한다. 포스트시즌 대진은 전기와 후기리그 성적을 통합한 정규리그 전체 순위에 따라 웰컴저축은행(1위)이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하고, 블루원리조트(2위)가 플레이오프에 직행했다. 하나카드(4위)와 TS삼푸-푸라담(6위)은 준플레이오프를 치른다. 하나카드와 TS삼푸-푸라담의 준플레이오프는 다음 달 17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방송센터에서 막을 올린다. /연합뉴스

AI페퍼스 아쉬운 패배

흥국생명에게 1-3으로 져 3연패

광주 AI페퍼스가 3연패를 당했다. 페퍼스는 15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전에서 세트스코어 1-3(22-25, 25-23, 27-29, 22-25)으로 졌다. 페퍼스는 지난해 2월부터 홈 13연패에 빠지면서 GS칼텍스가 보유한 여자부 홈 최다연패(12연패) 기록을 새로 썼다. 승부처는 세트 점수 1-1로 맞선 3세트였다. 페퍼스가 21-18로 기선을 잡았으나 흥국생명은 엘레나의 강타와 이주아, 김다은의 블로킹 득점을 묶어 대거 5연속 득점해 경기를 뒤집었다. 페퍼스도 물러서지 않고 문슬기의 시즌 첫 서브 에이스와 이한비의 퀵오픈으로 24-24를 만들어 듀스로 끌고 갔다. 듀스에서 흥국생명은 전위로 나선 김연경이 있었다. 김연경은 고비 때마다 상대 코트를 때려 27-27까지 팀의 3득점을 모두 책임졌다. 이후 김연경이 후위로 돌아가자, 흥국생명은 엘레나와 김다은의 공격으로 길었던 3세트에 마침표를 찍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15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에서 김연경의 공격을 페퍼스 이고은과 박경현이 블로킹하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영웅
2관	아바타: 물의 길
3관	아바타: 물의 길, 해시태그 시그네
4관	스위치
5관	아바타: 물의 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6관	아바타: 물의 길, 더 퍼스트 슬램덩크
9관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7관	영웅, 스위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8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쉐르맨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2023 신년음악회

GWANGJU SYMPHONY ORCHESTRA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70회 정기연주회
2023 신년음악회
일시 : 2023-01-17(화) 19:30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524-5086

즐거움
문화산책

THE FIRST SLAM DUNK
2023.01.04